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제 [] 선택
----	--	------	--	---	--	----------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인간 본성에 관한 제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문득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아이의 부모와 친분을 맺기 위해서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나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본래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 ① 친소(親疏)의 분별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 ② 자연적 성품을 해치지 않도록 도덕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하늘이 부여한 선한 마음을 확충하여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
- ④ 사덕을 후천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 ⑤ 불선(不善)의 원인이 악한 본성임을 깨달아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존재하는 모든 사물[色]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아름답긴 추하긴, 그 일체는 나도 아니고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니 이것을 바른 지혜[慧]라 한다. 수(受)·상(想)·행(行)·식(識)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 <보 기>
- ㄱ. 사물의 참모습을 통찰하여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
 - ㄴ. 중도(中道)를 실천하여 탐욕과 어리석음을 제거해야 한다.
 - ㄷ. 연기를 깨달아 오온(五蘊)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ㄹ.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명(無明)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방식과 개인이 정의롭게 되는 방식은 같다. 개인이 정의롭고,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은 영혼의 내적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즉 영혼의 걱정적인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에 복종하고 협력하며, 걱정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욕구와 관련되는 부분을 지배할 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통치자가 반드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잘 맞는 한 가지 직분에 종사해야 한다.
- ③ 생산자들 이외의 국가 구성원은 사유 재산을 갖지 말아야 한다.
- ④ 절제는 이성, 기개, 욕구가 내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 ⑤ 참된 세계는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4.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해야 한다.
- ② 갑: 군주는 어진 정치를 위해 먼저 자신의 인격을 닦아야 한다.
- ③ 을: 군주는 백성들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④ 을: 공(功)을 세우고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백성의 평안한 삶을 위해 예악을 바로 세워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이 세계 안에서, 아니 이 세계 밖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에 의해서나 어떤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욕만으로 즉 그 자체만으로 선하다.

- ①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 법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② 실천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 ③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
- ④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 규칙이 곧 도덕 법칙이다.
- 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산출하게 될 결과에 달려 있다.

6. (가)의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르니 본래 순선 하지만, 이가 발하여 이루어지기 전에 기가 가리면 불선으로 흐른다.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니 불선이 없지만, 절도에 맞지 못하면 방탕해져 악이 된다.</p> <p>을: 정(情)의 선한 측면은 청명한 기를 타고 천리에 따라 나오니 그것이 인의예지의 실마리인 사단이다. 정의 불선한 것은 이미 더럽고 탁한 기에 가려져서 도리어 이(理)를 침해하니 인의예지의 실마리라고 볼 수 없다.</p>
(나)	

<보 기>

ㄱ. A: 사단과 칠정은 성(性)에서 발한 감정인가?
 ㄴ. B: 이와 기는 서로 발하여 작용할 수 있는가?
 ㄷ. B: 사단은 칠정과 달리 이와 기가 분리된 감정인가?
 ㄹ. C: 칠정 중 선한 감정은 사단과는 다른 별개의 감정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어떤 것이 존재하며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오직 각각의 개인이다. 각각의 개인이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이다.

을: 만일 개인만이 자신의 세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가 판단한 것이 항상 참되고 옳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다른 이보다 현명하단 말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무지이다.

<보 기>

ㄱ. 갑은 도덕 판단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ㄴ. 을은 인간의 그릇된 행위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ㄷ. 을은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ㄹ. 갑과 을은 행복한 삶과 유덕한 삶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도록 하자. 만일 그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 행위는 관련자 전체 또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을: 고상한 기능에서 나오는 쾌락은 인간의 동물적 본성으로 느끼는 쾌락보다 그 종류에 있어서 더 선호되어야 한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 ①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가 중요함을 간과한다.
 ②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공리 증진에 있음을 간과한다.
 ③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조화시켜야 함을 간과한다.
 ④ 저급한 쾌락보다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보편적 기준이 있음을 간과한다.

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모든 것이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스스로 즐기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우리의 지성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과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그의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 ① 신은 초월적 창조자이자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다.
 ② 만물과 달리 인간은 양태가 아니라 실체로서 존재한다.
 ③ 자연 안에는 필연적인 것과 함께 우연적인 것도 존재한다.
 ④ 최고의 행복은 자연 그 자체인 신을 인식함으로써 얻어진다.
 ⑤ 인간은 자유 의지를 발휘해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10. 한국 근대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나의 도(道)는 상생(相生)의 도이다. 사람에게 원억(冤抑)을 짓지 말라. 척(斥)이 되어 보복하느니라. 이제 만고의 원한을 풀고[解冤] 신명을 조화하여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게 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후천의 선경(仙境)이 세워질 것이다.

을: 나의 도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며,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데에서 조화가 이루어진다.

- ① 갑: 서로의 원한을 풀고 천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갑: 상생의 도로써 내세에서 후천개벽을 이루어야 한다.
 ③ 을: 한울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④ 을: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외세의 침략에 대항해야 한다.
 ⑤ 갑과 을: 신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실현해야 한다.

1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스승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승님,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돈오(頓悟)와 점수(漸修),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네. 모든 성인(聖人)은 먼저 깨치고 뒤에 닦았고, 그 닦음에 의해 깨달음을 얻었다네.

스승님, 돈오가 이미 깨달음인데 어찌하여 점수를 실천해야 하나?

돈오하여 비록 깨달았으나 과거로부터 악해 온 습기(習氣)가 남아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 의지해 닦으면서 점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네.

- 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
- ② 중생이 불성을 깨우쳐도 번뇌가 남아 있을 수 있다.
- ③ 누구나 돈오하게 되면 모든 습기가 곧바로 제거된다.
- ④ 습기가 모두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돈오는 가능하다.
- ⑤ 단박에 깨달음을 얻은 후에라도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리는 아주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나는 주저 없이 그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을: 지식은 힘이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는 우상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얻지 못하게 한다.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학문 탐구 방법으로 ㉠ 갑은 확실한 지식을 얻고자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를 주장하였고, ㉡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다른 진리를 도출하는 연역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 을은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과 편견인 우상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고, ㉣ 관찰과 경험을 통해 개별 사례에서 일반적인 명제를 도출하는 참된 귀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 갑과 을은 모두 인간의 이성으로는 자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도록 하여야 한다.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듣도록 하여야 한다. 귀는 듣기만 할 뿐이며 마음은 사물에 응할 뿐이지만, 기관 공허하여 무엇이나 다 받아들인다. 도(道)란 텅 빈 곳에만 모인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心齋)라고 한다.

<보 기>

- ㉠. 감각에 의지하여 지식을 쌓아나가는 수양을 해야 한다.
- ㉡.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 ㉢.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 ㉣. 만물에 도가 내재함을 깨달아 모든 것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4.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두 사랑이 두 국가를 이루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지상의 국가를 이루었고,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의 국가를 이루었다. 지상의 국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천상의 국가는 신을 향유, 즉 신을 그 자체로 사랑한다. 지상의 국가는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기를 바라고, 천상의 국가는 우리 양심을 보시는 신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

- ① 악은 선에 반대되는 실체로서 신의 창조물 중 하나이다.
- ② 신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해야 할 최고의 대상이다.
- ③ 신과 하나 됨으로써 현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완성해야 한다.
- ④ 인간은 자기 자신을 비롯한 피조물보다 신을 사랑해야 한다.
- ⑤ 자유 의지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남용되지 않는다.

1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도덕 판단은 내적 감정의 결과이다. 어떤 행위가 시인(是認)의 감정을 유발할 때,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 '선하다' 또는 '옳다'고 말한다. 부인(否認)의 감정을 유발할 때,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 '악하다' 또는 '그르다'고 말한다.

<문제 상황>

A군은 TV를 시청하다가 불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어린 자녀를 돌보며 생계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한 아버지의 사연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A군은 모아온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감정에 따르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하세요.
- ② 행위 그 자체가 옳다는 의무 의식에 따라 행위하세요.
- ③ 이성적 판단을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로 삼아 행위하세요.
- ④ 힘든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정언 명령에 따라 행위하세요.
- ⑤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발휘해 행위하세요.

16. (가)의 중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마음[心]은 앎을 갖추지 않음이 없고 만물은 이(理)를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다만 이를 궁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앎이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p> <p>을: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理]이다. 세상에 어찌 마음 밖의 일[事]이 있을 수 있고, 마음 밖의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p>
(나)	

— < 보 기 > —

ㄱ. A: 마음과 이치는 하나이므로 둘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
 ㄴ. B: 선한 삶을 위해 도덕적 앎과 행함을 일치시켜야 한다.
 ㄷ. B: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ㄹ. C: 앎을 지극히 하려면 사물이 지닌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는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을: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쾌락을 즐기고 나서 후회할 때와 멀리하고 나서 누릴 만족을 비교하여 경계한다면 어떤 정념의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평온한 삶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 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②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③ 공동선을 위해 공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④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념을 초월해야 하는가?
 ⑤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하는가?

1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런데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면 악을 행한다. 때문에 선을 행하면 실제로 자신의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罪)가 된다. 이는 마음[心]의 권능이지 이른바 성(性)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의 행사(行事)로 말하면 선하기는 어렵고 악하기는 쉽다.

- ① 인간은 누구나 선을 좋아하므로 선을 행하기 쉽다.
 ② 금수의 기호(嗜好)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기호는 없다.
 ③ 덕을 갖추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
 ④ 인간은 선악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천리에 순응해야 한다.
 ⑤ 측은지심은 마음에 본래 인(仁)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9.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곤궁해진다. 고대의 성왕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한 까닭에 예(禮)를 제정해 귀천의 등급을 매겨 주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차등이 있게 하여 구분을 지었다.

- ① 예를 근거로 인간이 지닌 모든 욕망을 없애야 한다.
 ②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오직 인위의 결과이다.
 ③ 군자가 지닌 본성과 소인이 지닌 본성은 본래 같지 않다.
 ④ 도덕적 삶을 위해 하늘이 부여한 예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⑤ 누구에게나 타고난 본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양이 필요하다.

20.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만일 덕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보다도 정밀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중간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중용에 속하는 것이다.

- ① 품성적 덕은 반복적 실천 없이도 형성될 수 있다.
 ②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에도 중용이 존재한다.
 ③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할 수 있다.
 ④ 중용을 파악하는 데 실천적 지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⑤ 지성적 덕은 품성적 덕과 달리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